

# 김천 직지사 간행의 『資治通鑑綱目』 연구

## Study on Gimcheon Jikji-temple Published *Zizhitongjiangangmu*

송일기(II-Gie Song)\*, 오정환(Jung-Hwan Oh)\*\*

### 【초 록】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중요하게 여긴 역사서였다. 종종 이후 사림이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지방의 서적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관들이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 된다. 김천 직지사에서 간행된 『자치통감강목』은 간행의도와 판각과정이 상세하게 수록된 발문이 있어 가치가 높다. 이 판본은 지방의 여러 곳에서 나누어 판각하여서 직지사에 모아 간행하였고 중앙의 교서관으로 이송되었는데 이 과정이 『조선왕조실록』과 『미암일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직지사에서 간행된 『자치통감강목』 발문에 『조선왕조실록』과 『미암일기』의 기록을 연결하면 기획에서 소장애 이르는 출판 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16세기 후반 지방출판의 양상을 알 수 있다.

### 【키워드】

자치통감강목, 지방출판, 갑인자, 미암일기, 유희춘, 직지사

### 【Abstract】

Kings of many generations in Chosun Dynasty considered the Zhu-Zi's *Zizhitongjiangangmu* as an important history book. When Sarim appeared to the front of main political arena since Chung jung, it had been common for regional administrator to publish and distribute books with the need for text-type resources. *Zizhitongjiangangmu* published by Jikji-temple in Kimchun area is a valuable resource that contains the purpose of publishing those books and describes the

process of publishing and engraving in detail.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Miamilgi* also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process of how to transfer those woodblock-printed books to the Kyosokwan, which had been engraved by several regions and gathered together into Jikji-temple.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s contained i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Miamilgi* and connected them to postscript of *Zizhitongjiangangmu* published by Jikji-temple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publications in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 【Keywords】

*Zizhitongjiangangmu*, Province Publication, Kapinja, *Miamilgi*, Yoo Hee Chwun, Jikji-temple

## 1. 서 론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하 『통감』)을 춘추대의에 따라 재구성한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하 『강목』)은 조선 세종 때 경자자(庚子字)로 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경연 교재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직지사에서 간행된 『강목』은 갑인자(甲寅字)로 인출된 활자본의 복각본으로 지방에서 판각된 판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미암일기(眉巖日記)』에 기록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여러 논문에서 언급 되었다. 배현숙은 『고사촬요(故事撮要)』에 누락된 선조초 지방책판 연구에서 지방의 분각 사례로 영호남에서 판각한 『강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xsealt@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0년 11월 3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목』을 소개하였고(배현숙 2003), 최경훈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주자 저술 중 『강목』을 설명하면서 영동(永同)과 영남(嶺南)의 책판을 언급하였다(최경훈 2009).

현재 남아 있는 직지사간행 『강목』을 보면 미암 유희춘(柳希春)의 발문(跋文)이 있어 간행배경과 판각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직지사간행 『강목』은 여러 곳에서 나누어 판각이 되었고 문헌에 따라 명칭이 달라 기존의 연구에서는 판각처로 판본을 명명(命名)하거나 서로 다른 판본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직지사에서 간행한 『강목』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화봉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전권을 소장한 곳은 없고 59권 151책 중 142책이 남아 있는 고려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소장본과 화봉문고 소장본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판본의 명칭을 나누어 판각한 것을 모아 간행한 장소인 직지사의 이름을 따서 직지사본 『강목』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16세기 후반 지방관아에서 이루어진 출판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지사본 『강목』의 발문, 『조선왕조실록』, 『미암일기』의 기록을 토대로 간행배경과 판각처본으로 삼은 활자본, 지방관들의 주도로 진행된 간행과정, 완성된 책판이 중앙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발문에 수록된 인물들을 분석하여 기획 단계부터 소장에 이르는 출판의 전체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2. 직지사본의 간행배경과 판각처본

### 2.1 간행배경

직지사본 『강목』의 간행배경은 유희춘이 쓴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유교경전의 경우 발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간행연대나 간행배경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 이 직지사본 『강목』은 마지막에 유희춘의 발문이 있어 그 간행배경과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서적이 우리나라에 유포되면서 주현에서 판각한 것이 고르지 못하고 부족하다.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은 역사책 중에 경전이라 할 만한데 아직 판각한 바가 없어 학문을 좋아하고 옛 것을 살피는 선비가 이를 애석해 한 지 오래되었다. 융경기사(隆慶己巳: 1569년) 옥천군수 서희려(沃川郡守 徐希呂)와 영동현감 이창(永同

縣監 李徹)이 유학을 공부하는데 빠지고 모자란 뜻이 있음을 개탄하여 함께 선본(善本)을 구입하여 판목을 새기고자 했다(中華經籍 流布於東方 綱紀宇宙之書 鉸梓於州縣者不一而足 獨朱文公通鑑綱目 以史中之經 未有開板之所 好學稽古之士 扼腕者久矣 隆慶己巳 沃川守徐君希呂 永同宰李君徹 慨然有爲斯文修學空闕之志 相與購得善本謀鑿板...).

유희춘의 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성리학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의 서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지방마다 판각되는 책이 고르게 배포되지 못하였고 그나마도 부족하였다. 둘째,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교경전 이외에 주석서나 역사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 『강목』은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판각을 기획한 인물이 그동안 지방출판을 주도해온 관찰사가 아니라 군수와 현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보내온 책을 가지고 판각한 것이 아니라 선본을 따로 구매하여 판각처본(板刻底本)으로 사용하였다.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는 것을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서적의 기획, 인출, 보급,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가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 서적의 유통은 중앙의 교서관(校書館)에서 활자본으로 다양한 책을 인쇄하고 각 지방의 감영(監營)으로 보내어 이 책을 처본으로 삼아 필요한 만큼 복각하여 보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서적간행이 활발하게 했던 세종은 각 도의 관찰사들이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거나 혹은 이미 다른 도에서 간행한 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또 긴요하지 않은 글을 간행하면서 재력만 허비하니 앞으로는 반드시 임금에게 알리고 간행하라는 전교를 예조에 내렸다(世宗實錄 卷57, 14年(1432 壬子) 8月 3日 己丑). 한정된 물자를 가지고 많은 종류의 책을 펴내야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 낭비되는 물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간행과 보급을 통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에서 판각한 책판은 중앙으로 이송을 하여 주자소(鑄字所) 등의 기관에 보관하거나(世宗實錄 卷43, 11年(1429 己酉) 2月 23日 己亥), 책판은 지방에 그대로 두고 인출한 서책만 중앙으로 올려 보내기도 하였다. 지방에 보관되는 책판들도 신규 지방관이 인수인계 할 때 해유문서(解由文書)에 책판명과 쪽수를 정확히 기록하여 전임자의 그 재임 중에 파손 또는 유실된

부분을 보충하여 인계하도록 하여 매우 엄격히 관리하였다(世宗實錄 卷29, 7年(1425 乙巳) 9月 1日 丁酉). 만약 책판을 훼손하거나 유실될 경우 해당 지방관에게 엄한 문책을 내려졌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적의 간행과 보급을 통제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간행과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서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중앙통제 방식은 점차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중앙에서 인출한 서적은 주로 중앙의 당상관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서적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했고 그나마 지방에서는 서책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중앙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서적의 보급이 한계에 부딪치자 점차 서적의 간행이나 보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손계영 2009).

성종 2년에는 예조에 명을 내려 각 도의 관찰사들로 하여금 『소학(小學)』이나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을 간행하여 백성들을 강습하도록 하였고(成宗實錄 卷10, 2年(1471 辛卯) 6월 18일 己未), 성종 7년에는 각 도의 관찰사들이 『소학』이나 『삼강행실』을 간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질책하였다(成宗實錄 卷69, 7年(1476 丙申) 7월 23일 甲子). 이러한 책들은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급하는 책으로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간행과 보급방식은 지방 곳곳에 책을 보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책을 간행하여 보급하는 일은 막대한 물자와 인력이 필요했다. 대체로 성종 때까지는 물자와 인력이 풍부한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은 관찰사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유교경전을 비롯한 윤리교화서를 간행하여 보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중앙에서 직접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우정임 2010).

15세기 이후 지방에서의 서적수요 증가는 사림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림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하여 지방에 자리 잡은 중소지주들로 야은 길재(吉再)와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조선 개국 후 정국을 주도했던 관학파(官學派)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지한 반면 사림은 경전해석을 중시하고 대의명분과 중국에 대한 존중, 지방자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하천을 개간하여 경제력을 쌓고 향안(鄉案)에 오른 사족(士族)들을 중심으로 향리와 백성들을 통제하며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쌓았다. 성종이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등 영남사림을 등용하면서 중앙정계에 등장하였고 중종반정 이후 정암 조광조(趙光祖)를 위시한 사림세력이 정치의 주도하면서 『소학』 등 유교교화서적이 각 지방의 감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간행되어 보급되었다. 향촌사회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림의 성장은 지방에서의 서적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각 감영에는 향촌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였고 지방의 사족들도 유교경전이나 문집 등 필요한 서적을 지방관아의 행정력과 지원을 받아 간행하기도 했다. 중종 이후에는 중국과의 사무역이 크게 늘어나 중국서적을 쉽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 지방관아에서는 이를 가지고 목판으로 간행하여 보급했다(우정임 2009). 하지만 유희춘이 발문을 쓴 1572년 즉, 16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지방의 서적 보급은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고 그나마도 충분하지 못했다.

16세기에 이르면 회재 이언적(李彦迪), 퇴계 이황(李滉), 율곡 이이(李珣) 등 뛰어난 학자들의 등장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지게 되었다. 서적의 보급도 유교경전과 교화서 뿐만 아니라 경전에 관련된 주석서, 역사서, 문집 등의 수요가 늘어났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송학(宋學)의 특징 중 하나가 의리를 바탕으로 사학을 경학화(經學化) 시키는 경사일체(經史一體)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사물을 설명하면서 체(體)와 용(用)이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했는데 경은 체가 되고 사는 용이 된다. 즉, 경은 이치의 근본이 되고 사는 이치의 작용이 되니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이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북송의 정이(程頤)와 범조우(范祖禹)에게서 시작되어 남송의 주자에 이르러 확고히 정립되었다. 사림이 관심을 가진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였다. 16세기 사림들은 관학파 주도로 편찬된 15세기 관찬사서에 거부감을 보이며 오히려 중국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한영우 1980). 특히 강지(姜贄)의 『소미가숙통감절요(小薇家熟通鑑節要)』나 증선지(曾先之)의 『십팔사략(十八史略)』 등은 초학자들의 기본교재로 널리 읽혀졌다.

유희춘은 『강목』을 역사서 중 경전이라 하였다. 춘추대의를 강조한 공자의 『춘추(春秋)』는 오경의 하나이고 주석서인 『좌씨전(左氏傳)』, 『곡량전(穀梁傳)』, 『공양전(公羊傳)』 또한 모두 경전의 반열에 올랐다. 주자의

『강목』은 공자의 춘추대의에 따라 사마광의 『통감』을 강(綱)과 목(目)으로 재구성한 것이니 경전에 버금가는 역사서라고 말한 것이다. 『통감』은 제목 그대로 통치에 도움이 되고 역대를 통하여 거울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통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마광이 생각하는 통치는 군주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와 신하가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즉,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마광이 이야기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는 사림의 이상(理想)이기도 했다. 『강목』은 『통감』과 함께 조선 초기부터 경연에서 진강을 하며 군주에게 제왕학을 가르치는 데 활용되었는데 15~16세기에 이르면 사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혀졌다. 고봉 기대승(奇大升)은 14세 때 매일 『강목』을 한 권 씩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 오음 윤두수(尹斗壽)는 말년에 『강목』을 좋아하여 손에 들면 밤늦도록 그만두지 않으니 끝까지 통독한 것이 몇 차례인지 모른다고 하였다(簡易集 卷9). 유희춘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큰 도리에 있어서 『강목』이 제일 긴요하고 『대학연의(大學衍義)』가 그 다음이라고 했다(宣祖實錄 卷10, 9년(1576 丙子). 9월 9일 戊戌) 유희춘은 『강목』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강목훈석(綱目訓釋)』이라는 주석서를 저술하였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발문에 따르면 직지사본의 『강목』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옥천군수 서희려와 영동현감 이창이다. 지방에서 서적간행을 주도하는 지방관은 주로 각 도의 관찰사들이다. 특히 중종 이후 각 지방에서 필요한 서적을 해당 관찰사가 독자적으로 간행을 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관찰사 이외 다른 지방관들도 점차 서적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집의 경우 16세기 이후 절도사, 부사, 목사, 군수 등 지방관들이 간행을 주도한 사례는 모두 68건으로 나타났다(손계영 2009). 이 중 16세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모두 4건으로 관찰사 이외의 지방관들이 서책을 간행하는 일이 이 시기에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강목』은 중앙에서 간행할 때도 종이 등 물자를 확보하는 일이 문제가 되어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종4품 군수와 종6품 현감이 독자적으로 거질의 간행사업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16세기 지방의 재정이 거대한 간행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발문에서는 판각을 위해 선본을 구득하였다고 적고 있

다. 서희려와 이창은 독자적으로 『강목』을 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본을 구하는 것도 서희려와 이창의 몫이었다. 『강목』은 조선시대 여러 차례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다. 서희려와 이창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많은 판본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적당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판각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 2.2 판각저본

『통감』은 사마광이 기존 기전체 사서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어 군주가 이를 통치에 활용하고자 하나 모두 읽을 수 없음을 통탄하여 편년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통사(通史)이다. 주자는 사마광의 『목록(目錄)』, 호안국(胡安國)의 『통감거요력(通監舉要曆)』, 『거요보유(舉要補遺)』를 참고하여 294권의 『통감』을 강과 목으로 나누어 59권으로 재구성했다. 주자가 강목을 편찬한 목적은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정통·비정통을 분별하기 위해서였다. 주자는 사마광이 『통감』을 저술할 때 공업(功業)의 실재(實在)에 근거하여 조조의 위나라를 기년(紀年)으로 삼은 것은 대의를 어지럽히는 것이라 하여 유비의 촉한을 정통으로 하는 관점에서 저술하였다. 남송은 중원을 이민족에게 잃고 일개 지방정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민족적 순혈주의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이 정통과 의리라는 송학의 특징과 결합하여 주자의 사학관이 형성된 것이다. 강은 『춘추』를 계승하여 포핍(褒貶)의 뜻을 나타내었고 목은 『좌씨전』의 예에 따라 상세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강목』의 서문은 주자가 43세 때 쓴 것인데 『강목』은 주자가 죽고 20여년이 지나서 간행되었다. 그래서 강은 주자가 쓰고 목은 제자인 조사연(趙師淵)이 마무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목』은 사실적인 역사를 기술하기 보다는 송학의 정통론과 의리론에 입각하여 쓰여 졌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는 통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남송 이후 성리학이 학문의 주류가 되면서 주자의 사론 때문에 오히려 통감보다 높이 평가를 받았다. 중국 역대왕조 중 이민족이 지배했던 금, 원, 청대에는 통감에 관련된 저작이 많았고 한족 왕조였던 남송과 명대에는 강목에 관련된 저술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권중달 2002).

『강목』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개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

열전에 보면 공민왕 3년(1354년) 정몽주가 『강목』의 편찬방법에 의거하여 역사편찬을 언급하였고(高麗史 卷117, 列傳30 鄭夢周),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린 교서에서 『강목』과 『대학연의』를 즐겨 읽는다는 기록으로 보아(太祖實錄 1권 總序 110번째 기사), 고려 말에 이미 신진사대부를 비롯한 집권층 내부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사』 편수에 참여한 윤소종(尹紹宗)의 아우 윤희중(尹會宗)이 공양왕에게 올린 상소에 다른 역사책은 조비(曹丕)의 연호를 쓰고 위나라를 높였으나 오직 주자만이 『강목』을 저술하여 조비의 연호를 말살하고 축한의 소열제(昭烈帝: 유비)를 정통으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주자가 『강목』을 저술한 동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때 이미 『강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음을 잘 알 수 있다(高麗史 卷120 列傳33 尹紹宗 附 尹會宗). 조선 개국 후에는 정종 2년(1400년) 경연에서 진강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들의 교육과 통치에 활용되었다. 대체로 학문이 융성했던 세종과 성종, 중종, 영조 연간에 경연에서 『강목』을 진강한 기록이 많이 있다.

『강목』의 간행은 세종 때 본격화 되었다. 우선 세종 2년(1420년) 경자자로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활자본이 간행되어 경연에 쓰이거나 신하들에게 반사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경자자본은 10행 21자와 10행 22자 두 가지 판본이 남아 있다. 10행 21자본은 주석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고 10행 22자는 주석이 본문 뒤에 붙어 있는데 주석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10행 21자본이 앞선 판본이다(최경훈 2009). 세종 18년(1436)에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 『강목』(이하 훈의 『강목』)을 인출하기 위해 강에 해당하는 대자(大字)를 진양대군 유(瑑)가 쓰게 하여 자본(字本)으로 삼고 활자로 새로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병진자(丙辰字)이다. 성현(成俔)의 『慵齋叢話』에 병진자를 남으로 주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최초의 연활자로 알려져 있다. 이 병진자본 훈의 『강목』은 조선왕조에서 통용된 『강목』의 정본(定本)으로 그 뒤 중종 때 대자는 '방병진자목활자(倣丙辰木活字)'를 만들어 원래 활자와 섞어 쓰고 증자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와 보자(補字)를 사용하여 인출했다. 선조 때는 대자를 완전히 '방병진목활자'를 사용하고 증자는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인 경진자(庚辰字)를 사용하여 인출했다(천혜봉 1997). 이 세 가지 판본은 같

은 활자로 찍은 것이어서 식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판심의 어미로 그 판본을 구분할 수 있다. 현존하는 목판본도 대부분 이 병진자본을 복각한 것으로 그 중 세종 때 간행된 판본을 복각한 것들이다.

중종 때는 병진자본 외에 1496년에 간행된 명나라 황중소(黃仲昭)의 『신간자치통감강목(新刊資治通鑑綱目)』을 참고로 하여 초주갑인자와 보자를 사용하여 교서관에서 인출한 것이 있다. 『신간자치통감강목』은 원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주석서인 徐昭文(元)의 『資治通鑑綱目考證』, 汪克寬(元)의 『資治通鑑綱目考異』, 王幼學(元)의 『資治通鑑綱目集覽』,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 憑智序(明)의 『資治通鑑綱目質實』, 劉友益(元)의 『綱目書法』, 尹起辛(元)의 『資治通鑑綱目發明』 등 7종을 참고로 하여 편찬한 것이다. 주석에 대한 부분은 초주갑인자 보주본 『강목』의 큰 특징인데 『신간자치통감강목』에 인용된 주석서 7개 중 『서법(書法)』과 『발명(發明)』은 중자 한 줄로 그 외의 주석서에서 인용된 것은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하여 『서법』과 『발명』을 본문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였다. 이 때문에 문헌에 따라 이 판본을 가리켜 『서법발명(書法發明)』 또는 『발명강목(發明綱目)』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초주갑인자 보주본 『강목』의 별칭이다.

병진자본과 갑인자본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강목』의 큰 계통을 이루는데 이외에 성종 때 계축자(癸丑字), 숙종 연간에 한구자(韓構字)로 인출한 활자본이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한구자를 제외한 활자본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다. 『강목』은 판본에 따라 59책~150책에 이르는 거질로 출판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의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쉽게 간행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의 한구자본은 활자의 크기가 작게 하여 모두 30책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간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희려와 이창이 판각을 위해 저본으로 선택한 판본은 바로 중종 때 교서관에서 인출한 초주갑인자 보주본이다. 유희춘은 직지사본 『강목』의 저본이 중종 때 교서관에서 인출한 판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sup>1)</sup> 화봉문고에 소장된 초주갑인자 보주본 『강목』 卷五(中)과 卷三十二(下)를 가지고 고려대에 소장된 직지사본 『강목』과 비교해 본 결과 판식, 행자수와 글자체가 일치하는 북

1) 유희춘은 『강목』 목판이 올라왔으니 마땅히 인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말한 『강목』 목판은 11월 26일에 올라온 직지사본 『강목』을 가리키는 것이다(宣祖實錄 卷8, 7年(1574 甲戌) 12月 1日 辛丑).

각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지사본 『강목』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半郭)의 크기는 23.6×16.9cm, 전체 크기는 33.7×21.8cm이다. 계선(界線)이 있고 본문은 10행 17자에 주(註)는 단행(單行)과 쌍행(雙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자본의 어미(魚尾)는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고 북각본도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이지만 화문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와 상하내향흑어미가 나타나는 등 혼재된 양상이다. 이는 여러 곳에서 판각을 하여 그 어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 판본은 서례(序例)와 예목(例目), 그리고 서문과 본문,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9권으로 각 권이 상중하 혹은 상하로 이루어져 151책이다. 본문 뒤에는 유희춘이 융경 4년(1572년)에 쓴 발문이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소장본에는 기축시인경인하필(己丑始印庚寅夏畢)이라는 인출기가 목서되어 있다. 이 인출기 때문에 이 판본이 중종 25년(1530)에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인출기는 판각된 것이 아니라 맨 뒷장에 목서된 것으로 보아 1572년 판각된 판목을 가지고 뒤에 인출하고 그 연대를 목서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희려와 이창이 여러 판본들 중에서 중종 때 나온 초주갑인자 보주본을 선택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앞의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구하기 쉬운 최근에 나온 활자본을 선택했다. 판각을 계획한 1569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활자본은 중종 때 나온 병진자본 훈의 『강목』과 초주갑인자 보주본 『강목』이 있다. 둘째, 최근에 나온 두 개의 판본 중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주석보다 중국의 주석을 선호하였다. 선조가 유희춘에게 『강목』에는 훈의가 있고 서법발명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진강을 하여야 하는가 물었을 때 유희춘은 마땅히 서법발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했다(『미암일기』 책4, 甲戌 12월 1일). 사림의 성향이 우리나라의 것보다는 중국의 것을 숭상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유희춘만이 가진 특수한 의식이 아니라 16세기 사림의 보편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희려와 이창은 초주갑인자 보주본을 저본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직지사본 간행과정

#### 3.1 판각과정

서희려와 이창이 만나 처음 『강목』의 개간을 논의한 것은 선조 2년(1569년)이다. 옥천과 영동은 바로 이웃한 지역으로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 지방관끼리의 교류도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옥천 영동과 함께 직지사본 『강목』간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김천은 영동에서 추풍령을 넘으면 바로 직적이다. 추풍령은 조령과 함께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주요한 교통로였기에 이 지역들은 일찍부터 왕래가 잦았다.

『강목』을 개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본을 구득한 다음 과정은 출판 전반의 과정을 담당할 실무책임자를 구하는 것이었다. 서희려와 이창은 관리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관의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진행시킬 책임자는 아니다. 발문에 마침 민첩하고 일 잘하는 승려 명우를 만나 그 일을 위촉하였는데 명우는 권질이 많은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전력을 다했다(通得幹敏僧相遇屬其事遇也 不以卷帙浩穰爲難辦 盡心力而經營之). 유희춘은 명우가 환속한 직지사의 승려로 일을 주관한 자라고 했다(『미암일기』 책3, 壬申 11월 4일). 직지사는 삼국시대 건립된 고찰로 조선 정종의 태실(胎室)이 있어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도 다른 사찰에 비해 사세가 약화되지 않았다. 직지사와 직지사가 거느린 말사에서 불경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으로 미루어 직지사의 승려 명우는 불경 간행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강목』 간행작업을 위촉받은 것으로 보인다(이현자 2002). 현재 직지사에는 조선 후기 정조 때 판각된 가례증해판목(家禮增解板木)이 남아 있어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서적도 간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지사가 있는 김천은 문헌에 따라 금릉(金陵)이나 금산(金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직지사본 『강목』의 발문에는 금릉 직지사(直旨寺)라고 되어있고 『미암일기』에는 금산 직지사(直指寺)라고 되어 있다.

직지사본 『강목』의 발문에는 판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강목』과 같은 거질을 판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 물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군수와 현감과 같은 하위 지방관이 마련

2) 극히 일부분 花紋이 있을 자리에 卩, 正, 太 등 각수의 이름으로 생각되는 글자들이 판각되어 있다.

3) 15세기 서거정이 사정전훈의의 우수성을 극찬하고 중국에서 집답을 편찬할 때 훈의를 보았다면 감탄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대비되는 대목이다(서거정, 『筆苑雜記』).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서희려와 이창은 『강목』의 진행과정을 직속상관인 충청도관찰사에게 보고 하면서 출판비용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방관들의 출판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출판의 주된 담당자는 아직도 관찰사였다. 당시 충청도관찰사였던 유흥(兪泓)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공과 사로 나누어 속포(贖布)로써 그것의 비용을 돕게 하고 충청도와 경상도의 지방관과 촌락의 유생들이 쌀(米)와 포(布)를 내어 『강목』을 판각하는 것을 돕지 않은 자가 없었다(湖西觀察使兪公泓聞而嘉之分公私贖布以助其費於是湖嶺守宰村落儒生莫不出捐米布以輔成之).

공적으로는 속포로써 이를 도왔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관아에서 받아들인 속포를 사용하여 판각을 도왔다는 말이다. 속포는 죄인의 죄를 면제해 주거나 신분상승을 하게 해주고 받던 布를 말한다. 경국대전에는 포를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경우를 매우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속포는 적용범위가 다양하고 법률을 관장하는 기관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를 사사로이 운영하는 폐단이 많았다. 성종 때는 전 엽포만호 이종산이 속포를 받아 사사로이 쓴 죄로 도망쳤는데 이를 잡아 관직을 빼앗은 예가 있고(成宗實錄 卷84, 8年(1477 丁酉) 9月 28日 壬辰), 선조 때는 경기수사 홍치무가 함부로 속포를 징수하여 그 원성이 높아지자 그 일부를 비변사에 바쳐 무마하려 했다 파직당한 기록이 있다(宣祖實錄 卷19, 18年(1585 乙酉) 4월 21일 壬戌). 이렇게 속포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속포를 사사로이 사용하는 사례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 나타난다. 이 때문에 유희춘은 발문에서 유흥이 속포를 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

공적 지원 이외에 사적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의 지방관과 촌락의 유생들이 쌀과 베를 내어 그것을 도왔다. 직지사본 『강목』의 간행동기가 바로 지방 유생들에게 강목을 보급하는 일이다. 충청도관찰사가 재원 마련을 주도하였으니 충청도지역의 향촌 유지들이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발문에는 그 중 오천 출신인 전첨사 정창국(鄭昌國)과 박후린(朴厚麟)이 가장 많이 내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발문은 본문과 같이 10행 17자의 중자로 쓰여졌는데 정창국과 박후린에 대한 기록만은 소자쌍행으로 기록된 점이다. 그 이유로 『미암일기』(癸酉 6월 14일)에 이창이 김종려(金宗麗)를 통해 발문 개수를 요청해 와서 많은 부분은 들어주었으나, 재물을

내고 판각에 참여한 이 인은 소주(小註)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종려는 미암의 사위로 영동 출신이다. 이창이 김종려를 통해 미암에게 발문을 개수해 달라고 했는데 이 때 사적으로 비용을 낸 사람들을 불경의 시주기와 같이 발문에 실어 달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암은 다른 것은 이창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었지만 이 요청은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정창국과 박후린이 재물을 제일 많이 내었고 판각을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두 사람만은 본문 밑에 작은 글씨로 주석 처리 한 것이다.

이렇게 판각에 필요한 저본을 마련하고 출판비용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판각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판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1571년 2월 『미암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미암일기』 책3, 辛未 2월 27일).

서희려와 강목을 판각하는 일에 대해 상의했는데 훈의(訓義), 서법(書法), 발명(發明)으로 판각을 하려 했으나 여러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되었다. 정오(正誤), 고증(考證), 질실(質實), 집람(集覽)의 식으로 어지러이 뒤섞여 판각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하여 대제학 박순과 의논하게 하였다.

판각의 저본이 되는 초주갑인자 보주본은 본문에 강과 목이 있고 그 뒤에 7개의 주석 중 해당되는 것이 차례로 나오는데 대체로 집람, 질실과 같은 소주가 먼저 나오고 서법, 발명이 중자로 뒤에 나온다. 『미암일기』의 기록으로 보아 처음에는 훈의, 서법과 발명의 주석을 중요하게 여겨 여러 주석들 중 앞에 위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활자본을 복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판을 만드는 독자적인 판각이 된다. 복각을 하는 것보다 일도 많아지고 교감과 교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저본을 그대로 복각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춘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고 있던 1571년 처음으로 직지사본 『강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평소 『강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유희춘은 직지사본 『강목』의 간행에 큰 흥미를 느꼈다. 서희려에게 박순과 논의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올라와서는 직접 박순과 이 일을 논의하여 서희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미암일기』 책3, 辛未 3월 16일). 6월에는 유

생 박후린이 강목개관의 일로 충청도 지방관들의 관자(關子)를 가지고 유희춘을 찾아오는 등 유희춘은 직지사본 『강목』의 판각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판각이 끝난 후 발문을 써주게 된 것이다.

직지사본 『강목』의 판각은 영동, 옥천, 금산 등지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각 관아에서 나누어 분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옥천과 금산 등에서 판각을 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방관들 또한 각기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이 시작한지 4년이 지나 1572년 가을에 그 일을 마치고 이를 나아가 직지사에서 합쳤다(分刻宇沃川金山等處慶尙全羅方伯亦各補其不足 閱四稔至今年秋訖其功乃湊合于金陵直旨寺儼然成一奇寶自朝著搢紳以至鄉閭冠童莫不以丕闡文道嘉惠後學擊節歡呀此亦東方一大慶也).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판각을 할 때 『강목』과 같이 거질일 경우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판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 10년에 강원도 관찰사가 『사서대전(四書大全)』을 세 곳에서 나누어 판각을 하여 각기 누락을 지어 책판을 보관하고 지원하는 증들에게 지키게 하되, 임기를 마치면 관직을 주자는 보고를 올린 기록이 있다(世宗實錄 卷39, 10年(1428 戊申) 1月 26日 己酉).

판각이 완료된 시기를 발문에는 그냥 가을이라고 했지만 『미암일기』에는 1572년 9월이라고 되어 있다. 유희춘의 옥천에 살던 처조카 주헌민이 별시(別試)를 보러 서울에 오면서 강목의 판각이 마무리되어 금산 직지사에 모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 때 명우가 우선 10여 건을 인출하여 당세의 대인군자에게 바치고자 하니 유희춘이 마침 교서관에서 강목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한 건 얻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다(『미암일기』 책3, 壬申 11월 4일). 유희춘은 며칠 뒤 주헌민에게 호서강목개관(湖西綱目開板)을 써 주었는데 발문의 일자가 용경 4년 11월인 것으로 미루어 이 때 써준 것이 바로 직지사본 『강목』의 발문임을 알 수 있다(『미암일기』 책 3, 壬申 11월 17일).

### 3.2 인출과정

1572년 11월에 쓴 유희춘이 발문을 직지사로 보내고 그것을 합쳐 최초의 인출본이 나온 것이 그 다음해인 1573년이다. 직지사에서 간행된 인출본은 곧바로 중앙에 보내졌다. 먼저 진상용으로 정교하게 인쇄된 것은 관찰사를 통해 진상되었고 6월에는 승려 학순이 유희춘에게

강목을 가지고 왔다. 표지제는 사자관 이정(李正)이 써주었는데 쓰다 보니 150책 전체가 아니라 144책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빠진 6권은 며칠 뒤 학순이 다시 가지고 왔다. 이 때 유희춘은 발문에 2자가 틀렸으니 이를 고치라고 학순에게 말했는데 세 곳에 소장된 현존본의 발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유희춘이 고치라고 한 글자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미암일기』 책4, 癸酉 6월 11일).

진상용 강목이 도착한 후 선조의 명으로 교서관에서는 강목의 인출을 준비하였는데, 유희춘이 인출할 종이의 수를 잘 못 산정하여 비를 무릅쓰고 나아가 선조에게 죄를 청하였다(『미암일기』 책4, 癸酉 6월 28일). 다음날에는 교서관 박사 나신국(羅薰國)이 창준(唱準)과 함께 와서 강목 인출에 필요한 종이를 산정하기 위해 다시 세었는데 유희춘도 같이 세어 틀린 것을 바로 잡았다(『미암일기』 책4, 癸酉 6월 29일). 종이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책을 인출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여러 번 세어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했다. 화봉문고 소장본 권59 하를 보면 종이가 모자라 이어붙인 종이에 인쇄한 흔적이 보인다. 선조가 내린 전교에는 진상용으로 13건, 국용으로 200건을 인출하라 하였는데 하삼도(충청, 경상, 전라도)의 삼발은 유명무실하여 실제 민간에서 징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호조와 교서관 제조가 상의하여 100건 만 인출할 것을 청하고 이를 허락받았다(『미암일기』 책4, 癸酉 7월 12일). 이 때 종이는 대부분 하삼도의 닥밭에서 생산되었는데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얼음이 얼어 책을 인출하기에 부적합하니 종이를 미리 판각할 근처의 대읍으로 모아 놓고 정월 20일 이후에 교서관의 관원을 보내어 인출하게 하려고 했다(『미암일기』 책4, 癸酉 8월 16일).

하지만 강목의 인출은 선조의 명으로 한동안 중단된다. 선조는 1573년 9월 영동에서 새로 개간한 강목관을 해당 관찰사로 하여금 교서관으로 이송하라는 교지를 내려(宣祖實錄 卷7, 6年(1573 癸酉) 9月 24日 辛丑), 그 다음해인 1574년 강목이 도착한 후에 다시 인출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 때 도착한 강목은 바로 인출되지 않고 유희춘이 건의한대로 교정을 거치게 된다(宣祖實錄 卷8, 7年(1574 甲戌) 12月 1日 辛丑).

『강목』 목판이 이제 올라왔으니 마땅히 인출해야 합니다만 이 판본은 종종조에 교서관이 인출한 판본으로서 신이 임인년에 시강원 설서로 있을 때에 그 판본을 보니



잘못된 글자가 많았습니다. 오직 세종조에 인출한 훈의 『강목』만이 글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서관 관원들은 학식이 부족하여 교정을 할 수가 없으니, 홍문관의 관원들에게 훈의 『강목』에 의거하여 교정하게 하소서.

이에 선조는 예조에 전교를 내려 훈의와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한다. 이후 인출과정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교정이 끝난 후 처음의 계획대로 진상용 13건과 국용 100건이 모두 인출되었는지, 인출된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1578년 『강목』을 인출하다 문책을 당한 관리에 대한 기록이나(宣祖實錄 卷12, 11年(1578 戊寅) 7月 12日 辛酉),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 중에 1578년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직지사본 『강목』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1578년 이전에 인출이 이루어져 경연에 사용하거나 반사된 것으로 보인다.

### 3.3 책판의 이관

책판의 수장 문제는 지방관과 직지사, 중앙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1573년 7월 5일 간행을 주도했던 영동현감 이창이 유희춘을 찾아와서 지금 금산 직지사에 있는 판목을 본도 관찰사에게 서찰을 보내 장서각을 직지사 곁에 지어 승려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미암일기』 책4, 癸酉 7월 5일). 같은 달 8일에는 이 일을 가지고 유희춘이 형조참판 박대립과 논의를 하였다(『미암일기』 책4, 癸酉 7월 8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서관에서도 7품 이하의 관리를 파견하고 인출은 직지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9월 24일 갑자기 외방의 강목을 교서관으로 이송하라는 선조의 교지가 내려진다. 선조의 전교가 내리기 직전 판각을 주도했던 직지사의 승려 명우가 유희춘에게 강목 1권을 가지고 와서 직지사에 판목이 소장되어 있는데 인출을 하기 위해 유생들이 귀찮게 굴면 증들이 불태울 염려가 있으니 서울로 가져다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었다고 건의하였다(『미암일기』 책4, 癸酉 8월 13일).<sup>4)</sup> 처음 유희춘에게 『강목』을 가져온 자는 승려 학순인데 이 때 빠진 책을 가지고 명우가 직접 찾아

온 것은 책을 구실로 직지사의 입장을 유희춘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명우의 의견이 유희춘을 통해 중앙에 전달된 것인지는 모르나 선조의 전교 내용을 보면 명우가 말한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sup>5)</sup> 책판 관리와 인출을 귀찮게 여기는 직지사의 입장과 책판을 중앙에 두고 필요한 만큼 인출하고자 하는 중앙의 입장이 맞물려 선조의 전교를 이끌어낸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경상도관찰사 김계휘(金繼輝)가 금산 직지사의 판목을 서울로 올려 보내면 외방의 유생들이 인출한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성주서원으로 옮겨두면 삼도의 유생들이 인출하기 편하고 유생 등이 수호를 하는 것이 견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미암일기』 책4, 癸酉 11월 28일). 이것은 처음 서희려와 이창이 『강목』의 판각을 계획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지방관리들과 재지사립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창, 김계휘 등 지방관의 의견과 직지사와 중앙의 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음 해인 1574년 경상도관찰사가 발명강목 판본을 보내와 교서관에 두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로 보아 김계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송된 판목은 보관과 운송이 용이하도록 모두 옷칠하여 보냈다(宣祖實錄 卷8, 7年(1574 甲戌) 11月 28日 丙申).

### 3.4 참여인물

#### 3.4.1 지원자

직지사본 강목을 간행하는데 참여한 인물은 발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지원을 담당한 지방관과 관리들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품계와 관직은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적혀있다. 이들 중 발문에서 실제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서희려, 이창, 유희춘으로 이들이 주도를 한 인물이다. 유희춘은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1571년뿐만 아니라 교서관에서 재직하던 1572년에는 발문까지 쓰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발문에는 옥천 금산 등지에서 분각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보태었다고 했다. 위

4) 승려 학순이 유희춘에게 전달해준 책은 모두 150책이었는데 명우가 빠진 한 책을 더 가지고 와서 151책 전질이 완성된다.  
5) 선조의 교서에는 이관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외방에 판목을 두면 公力으로 인출하려는 자가 수령이나 감사에게 청탁을 할 것이다. 둘째, 절에 두면 인출할 때 번번이 승려를 번거롭게 하여 불사를 수 있다. 셋째, 國都에 두면 인출하여 보기 여러 모로 편하다. 이 중 명우가 말한 내용이 두 번째 이유와 일치한다.

〈표 1〉 직지사본 『강목』 간행의 지원자

품계와 관직	성명	재직년도
가선대부경상도관찰사(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	박대립(朴大立)	1570 ~ 1571
가선대부전라도관찰사(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이양원(李陽元)	
통정대부수전라도관찰사(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	유희춘(柳希春)	1571
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	유홍(兪泓)	1569
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	박소립(朴素立)	1570
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	류전(柳堧)	1572
절충장군수충청도병마절도사(折衝將軍守忠淸道兵馬節度使)	서봉(徐峯)	
통정대부행청주목사(通政大夫行淸州牧使)	류정영(柳仲郢)	1568 ~
통훈대부홍주목사(通訓大夫洪州牧使)	김언침(金彦沉)	
통훈대부청주목사(通訓大夫淸州牧使)	이이(李珥)	1571
통훈대부행옥천군수(通訓大夫行沃川郡守)	서희려(徐希呂)	1567 ~ 1571
조산대부행영동현감(朝散大夫行永同縣監)	이창(李尙)	
도감어모장군전임치첩사(都監禦侮將軍前臨淄僉使)	정창국(鄭昌國)	
유사장사전영릉참봉(有司將仕郎前 英陵參奉)	박사종(朴嗣宗)	

에 언급된 지방관 중 관찰사를 제외한 청주, 홍주, 옥천, 영동은 모두 충청도의 지방관이다. 따라서 관각은 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경상도와 전라도는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별 관찰사를 보면 경상도가 1, 전라도가 2, 충청도가 3이다. 재임기간을 보면 유홍이 1569년, 박소립이 1570년, 류전은 1572년에 관찰사를 지냈다(임선빈 2002). 1571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던 윤현의 이름이 없으므로 보아 관각작업이 진행될 당시 해당 관찰사라도 실제 작업에 관여하지 안했다면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 거론된 인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관각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전첩사 정창국과 영릉참봉 박사종은 관각을 주도한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아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관각과정에 참여를 하였을까? 출신지역을 보면 정창국은 옥천출신이고 박사종은 영동출신이다. 즉 이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아니라 지역의 유지로 재물을 출연하고 관각과정에 참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3.4.2 실무자

발문에 기록된 사람들 중 관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관각과정의 실무자로 볼 수 있다. 거질을 여러 곳에서 나누어 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문에 실무자의 이름은 6명만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작업을 한 각수(刻手) 등의 이름은 아예 없다. 따라서 이 이름들은 실

제 관각을 진행한 인물이 아니라 실무자 중에서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던 인물들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생원 정유건(生員 鄭惟騫)

생원 김대승(生員 金大升)

감독 유학 정내신(監督 幼學 鄭薰臣)

유학 박후린(幼學 朴厚麟)

교정 유학 김탁(校正 幼學 金鐸)

도색승 명우(都色僧 明遇)

6명의 인물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마지막에 있는 도색승 명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우는 관각과정의 실무 총책임자이다. 도색승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색승을 거느린 우두머리를 말한다. 색(色)은 사무의 한 분장, 갈래, 담당을 의미하는 뜻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담당 관원, 일을 분장하는 관리라는 의미로 색관(色官)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색승은 실제 관각과 인출업무를 담당했던 승려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도(都)라는 것은 우두머리를 뜻한다.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의 후면 비문에는 도색공생(都色貢生)과 좌색공생(左色貢生)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공생(貢生)은 향교의 유생을 말하는 것이고 도색(都色)과 좌색(左色)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은 것으로 미루어 승지 중의 우두머리를 도승지라 칭하는 것처럼 색의 우두머리를 도색이라 칭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불교의 경전이였다면 뒷면 시

주기에 시주자와 함께 각수를 비롯한 실무자 이름이 자세하게 실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목』은 유교서적이기 때문에 승려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승려들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명우의 이름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5명 중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정내신을 제외한 4인은 옥천과 영동지역 출신의 유생으로 판각과정에서 감독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처음 판각을 계획한 사회려와 이창은 옥천과 영동의 지방관이고 재물을 가장 많이 낸 사람도 옥천 출신의 정창국과 박후린이다. 실무자의 출신지역에서도 옥천과 영동지역의 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직지사본 『강목』 간행을 주도한 지역은 충청도의 옥천과 영동, 김천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 4. 결 론

이상에서 선조 초기 옥천과 영동 등지에서 판각하여 김천 직지사에서 간행한 『강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직지사본 『강목』이 16세기 말 지방관들에 주도되어 간행된 것은 사림의 중앙 진출과 성리학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유학자들의 필독서로 지방 유생들의 서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에 대한 반영이다.

둘째, 종종 때 교서관에서 간행한 초주갑인자 보주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였다.

셋째, 출판비용은 공적으로는 관아의 속포를 사용하였고, 사적으로는 지방관과 지방 유생들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판각은 주로 옥천, 금산 등지에서 나누어 판각되었고 모자란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관들이 보충하였다. 판각된 책판은 김천 직지사서에서 모아 간행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이 판본은 직지사본 『자치통감강목』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처음 직지사서에서 소량이 간행되었고 책판의 소장처를 놓고 다양한 논의 끝에 중앙의 교서관으로 옮겨져 홍문관에서 교정을 본 뒤 간행되어 반사되었다.

다섯째, 판각기간 중 1571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던 윤현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발문에 기록된 지방관들이 실제 판각과정을 관여한 지방관임을 알 수 있다. 실무자는 대부분이 옥천과 영동 출신이고 판각에 참여

한 승려들 중 대표자인 명우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판본은 미암 유희춘의 발문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를 통해 간행동기 - 판각저본 - 비용마련 - 판각 - 인출 - 소장에 이르는 지방출판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고, 유교서적인 『강목』이 사찰에서 간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방출판의 주체인 관찰사나 서원의 출판방식과 비교하여 연구한다면 16세기 지방출판의 전모를 밝히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直指寺本 『資治通鑑綱目』 跋文.  
 유희춘. 1936-1938. [眉巖日記草] 1-5冊. 경성: 조선사편수회.  
 권중달. 2002. 『육일승천하는 중국의 힘 자치통감에 있다』. 서울: 푸른역사.  
 김항수. 1981.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서적의 간행·편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배현숙. 2003. 宣祖初 地方 冊板考. 『서지학연구』, 25: 335-337.  
 손계영. 2009.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15: 229-270.  
 오항녕. 1998. 조선 세종대 ‘자치통감사정전훈의’와 ‘자치통감강목사정전훈의’의 편찬. 『태동고전연구』, 15: 27-58.  
 우정임. 2009. 『조선전기 성리서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이현자. 2002. 『직지사 소장 불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임선빈. 2002. 『충청도관찰사에 대한 기초연구』.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천혜봉. 1997.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최경훈. 2008. 『조선시대 간행의 주자 저술과 주석서의 편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한영우. 1980. 16세기 사림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동양학』, 10: 145-184.